

행정안전부 장관, 8월 15일 밤부터 강한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대응 철저 지시
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5일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,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.

특히 이번 호우는 밤과 새벽이라는 취약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윤 장관은 상황관리의 공백이 없도록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.

1. 취약시간대 상황관리 및 공동 대응 체계 강화

호우 지역 공무원·경찰·소방 등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여 대응 공백을 차단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안전조치 후 활동에 임할 것

2. 위험지역의 선제적 점검과 통제 및 신속한 주민 대피

산지 집중호우로 인한 계곡과 하천의 수위 급상승 및 급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영장·캠핑장 등에 대한 사전 점검·통제를 강화하고, 위험 징후 시 즉시 행락객 및 주민을 대피시킬 것

산사태에 대비한 취약지역 점검, 지하철도,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모니터링,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 점검 및 주민대피체계 가동을 준비할 것

특히, 8월 16일까지는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인 만큼,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와 갯바위 등 위험지역의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

3. 재난 예·경보 채널을 총동원한 국민행동요령 홍보

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통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하고, 외출 자제 및 계곡·해안가·하천변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

윤호중 장관은 "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, 계곡이나 하천을 지날 때 급류 발생에 유의하시고,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신일철 (044-205-5230)
		담당자	서기관	현종일 (044-205-5234)
		담당자	사무관	전혜숙 (044-205-5231)

